

해외여행지 관심도

- ▶ '18년 11월 21일(수) 배포
- ▶ 자료 총 3매

기 관	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
책 임	김형곤 소장/Ph.D/대학원 교수
문 의	김민화 연구원/Ph.D
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연 락 처	02) 6004-764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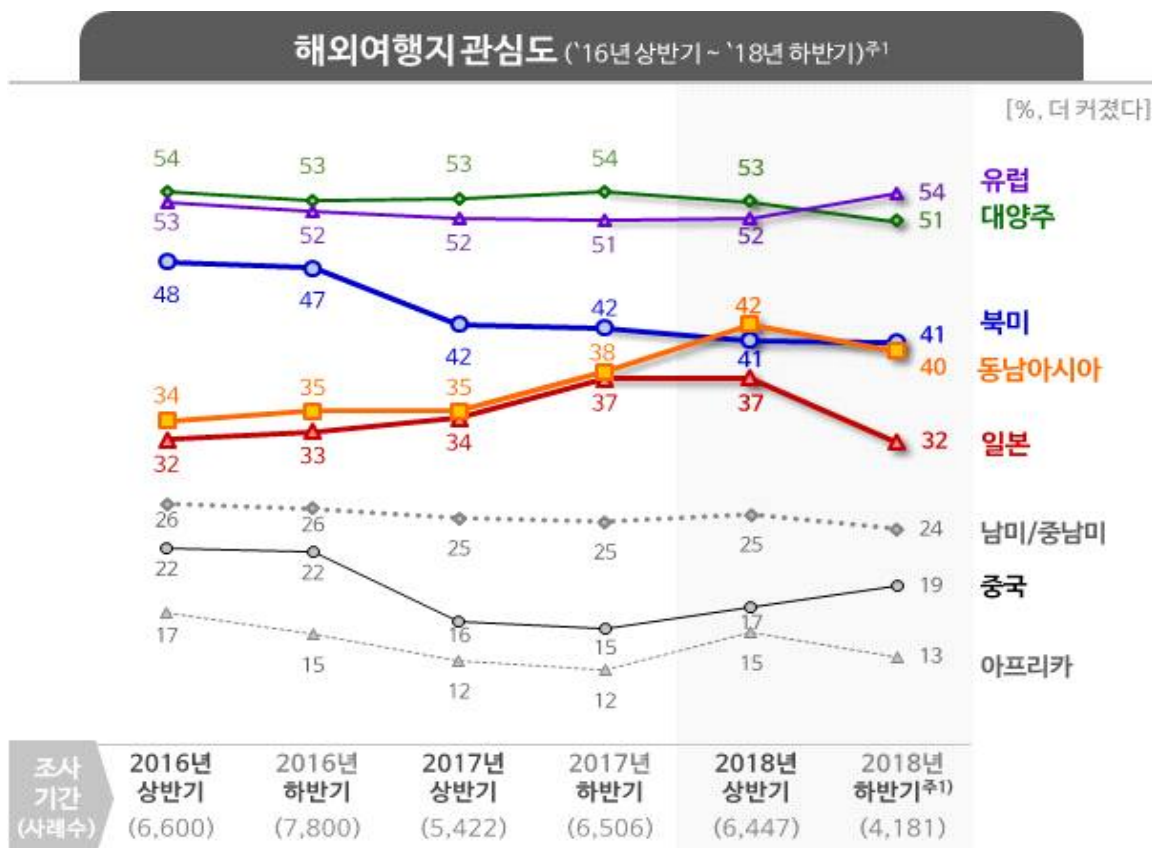
<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·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>

가고 싶은 해외여행지는 유럽과 대양주

- 미국/캐나다 관심도는 감소세, 동남아는 증가
- 상승세 일본은 자연재해로 대폭 하락
- 폭락했던 중국은 서서히 회복세

유럽과 대양주는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의 선두 자리를 3년째 지키고 있다. 반면 그 뒤를 따르던 북미는 계속 하락세로 급상승한 동남아와 경쟁하는 수준이 되었다.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일본은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크게 후퇴했고, 중국은 여행지 후보로는 남미나 아프리카만큼 먼 나라가 되었다. 해외여행지 선호도는 지난 1년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.

[그림1] 해외여행지 관심도



Q. 요즘 000을(를)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...

- 5점 척도; %커졌다 (5점+4점), % 비슷하다 (3점), % 적어졌다 (2점+1점)

주1) 2018년 하반기는 7월~10월까지 결과임

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‘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에서 지난 3년 간(’16년 1월~’18년 10월)의 해외여행지 관심도를 추적했다. 매주 250여명, 총 누적 3만7천여명의 응답을 정리했다[그림1].

해외여행지로의 관심도 수준은 대륙별로 큰 차이가 있다. 최상위 50%대에는 대양주와 유럽이 있다. 이 두 대륙의 관심도는 지난 3년, 6반기 동안 50%초반 대(51~54%)의 안정된 수준이었다.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양주는 유럽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, 최근 역전되었다. 남유럽(스페인, 포르투갈 등)과 동유럽(체코, 크로아티아 등)의 인기 상승과 여행자들의 높은 만족이 그 원인이다(참고. [해외여행 만족도, 스위스, 스페인, 크로아티아 유럽 3국이 Top3](#)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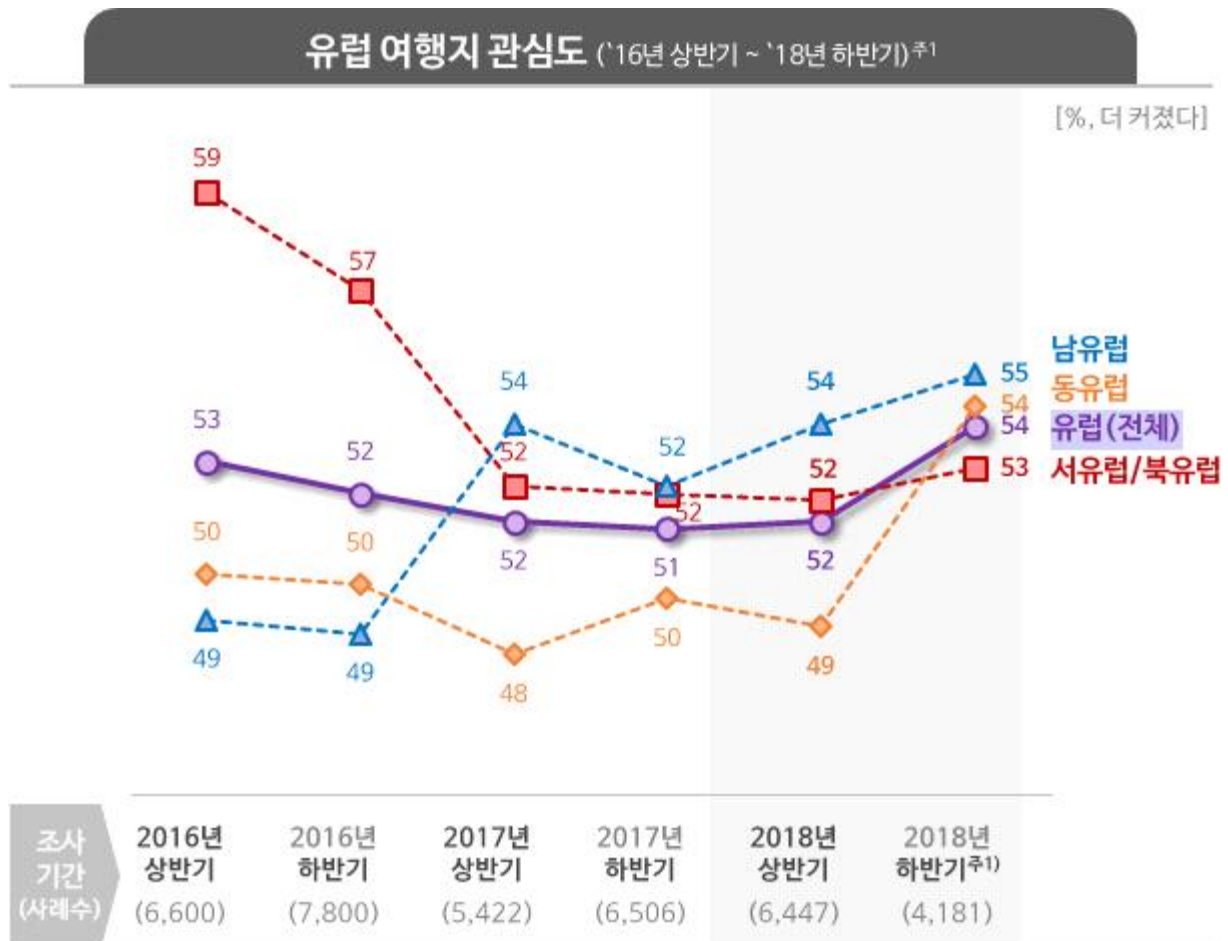
미국/캐나다로 대표되는 북미는 2016년 40%후반으로 선두 유럽과 대양주에 근접했으나, ’17년 상반기 이후 40%초반대로 크게 하락했다. 2016년 말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더해 단기간, 저비용, 근거리 선호경향의 여파로 최근 선호도가 상승한 동남아와 경쟁하는 상태가 되었다.

동남아와 일본은 2016년 30%대 전반에서 동반 부상하였으나, 올해 들어 다른 길로 갈린다. 동남아는 40%를 돌파해 북미와 경쟁하는 수준이 되었으나, 일본은 올해 상반기 상승에서 정체로, 하반기에는 정체에서 급격한 하락세로 30% 초반으로 되돌아갔다. 여러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식상함, 원만치 못한 양국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

관심도 30%미만의 지역으로는 남미(중남미 포함), 중국, 아프리카가 있다. 남미와 아프리카는 거리, 비용, 여행환경을 감안할 때 관심 갖기 쉽지 않은 먼 곳이나, 중국은 다르다. 서로 가장 큰 여행시장의 하나였던 한국과 중국은 사드 이후 불편한 관계로 변해 한국인에게 한때 아프리카 이상으로 먼 여행지로 인식되기도 했다(참고. [한국여행자 60%이상, 중국 여행에 '관심없다'](#)). 올해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양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.

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대륙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만 들여다 보면 국가별, 지역별로 큰 변화가 있다[그림2]. 유럽의 관심도는 51%~54%로 지난 6반기 간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최상위(59%)였던 서/북유럽(영국, 프랑스 등)은 53%로 내려 앉아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, 최하위(49%)였던 남유럽(스페인, 포르투갈 등)은 55%로 타지역을 앞섰다. 이 결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관광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. 잘 짜여진 여행지마케팅(Destination Marketing)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.

[그림2] 유럽 여행지 관심도



Q. 요즘 000을(를)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...
 - 5점 척도: % 커졌다 (5점+4점), % 비슷하다 (3점), % 적어졌다 (2점+1점)
 주1) 2018년 하반기는 7월~10월까지 결과임

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(연간 2만 6천명 조사)을 대상으로 하는 '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'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, 2016-2017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([리포트 다운로드 받기](#))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.

김민화 연구원(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)/Ph.D
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위원/Ph.D
 조혜원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

kimmh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43
 jungks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27
 johw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31